東洋學 17輯(1987年 10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益齋 西蜀行 詩의 硏究

Ⅰ. 序　論
Ⅱ. 西蜀行과 作詩
Ⅲ. 詮　釋
Ⅳ. 世界와 言語
Ⅴ. 結　論

池　榮　在*

Ⅰ. 序　論

崔瀣는 李益齋後西征錄序[(1)]에서, 「不行萬里地, 不讀萬卷書, 不可看杜詩」라고 하였다. 李穡은 益齋先生亂藁序에서, 「又奉使川蜀, 從王吳會, 往返萬餘里, 山河之壯, 風俗之異, 古聖賢之遺迹, 凡所謂閎博絶特之觀, 旣已包括而無餘, 則其疎蕩奇氣, 殆不在子長(司馬遷)下矣」라고 하였다. 이는 宋, 蘇轍이 上樞密韓太尉書[(2)]에서, 「太史公(司馬遷)行天下, 周覽四海名山大川, 與燕趙間豪俊交遊, 故其文疎蕩, 頗有奇氣」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益齋 李齊賢의 旅行과 文學과의 밀접한 관계를 밝힌 말이다. 益齋 李齊賢은 1314년 28세 때, 忠宣王의 부름을 받아 北京에 간 것을 비롯하여 前後 8次나 中國을 往返했다. 그 가운데 1316년 30세 때의 西蜀行, 1319년 33세 때의 江南行, 1323년 37세 때의 吐蕃行은 中國의 東西의 끝에 닿는 大長征이었다. 이 시기에 詩 76首를 썼는데 기타 16首를 합하면 中國에서 쓴 詩는 92首가 된다. 益齋의 現存하는 詩가 274首[(3)]이니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益齋亂藁』의 앞 부분에 한 시리즈씩 編次되어 있다. 益齋의 紀行詩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詩人이 詩를 創作하는 것은 무엇을 처음으로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이미 1000번이나 말해진 것을 다른 방법으로써 1001번째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言語의 可能性에 대한 부단한 探索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여러가지 詩形과 詩想이 존재하는 理由이다.[(4)]

淸, 顧炎武는 『日知錄』[(5)]에서, 「詩文之所以代變, 有不得不變者。一代之文, 沿襲已久, 不容人

---

* 檀國大, 中國文學專攻
(1) 崔瀣, 『拙稿千百』(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
(2) 『古文觀止』, 卷11, 宋文. 다만 ( )의 注는 筆者. 이하 같음.
(3) 李齊賢, 『益齋亂藁』 第1~4卷에 270首, 그 拾遺에 1首, 卓光茂, 『景濂亭集』에 3首 있음. 柳豐淵, 『益齋의 詩 硏究』, 博士學位請求論文(서울, 建國大學校大學院, 1985), p. 87, 참조.
(4) 李章佑역, 劉若愚, 『中國詩學』(서울 : 同和出版公社, 1984), p. 132.
(5) 顧炎武, 『日知錄』, 卷7.

人皆道此語。今且千數百年矣，猶取古人之陳言，一一而摹倣之，以是爲詩，可乎？」라 하였다. 淸，王國維는 『人間詞話』(6)에서, 「四言敝……而有五言，五言敝而有七言，古詩敝而有律、絕，律、絕敝而有詞。蓋文體通行旣久，染指遂多，自成習套。豪傑之士，亦難於其中自出新意，故遁而作他體，以自解脫。一切文體所以始盛終衰者，皆由於此」라고 이에 동조했다.

益齋가 산 高麗時代는 中國의 元代에 해당되는데 이 時代는 中國文學史로 볼 때 이미 詩의 時代도 지났고 詞의 時代도 지났으며 曲의 時代에 접어든 것이다. 詩의 創作은 그만큼 어려워졌으므로 作詩의 動機가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作品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擬古主義가 성행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近似하더라도 끝내 創作이 아니므로 진정한 詩가 될 수 없다.

이 小論에서는 益齋에게 있어 中國旅行이란 비상한 經驗이 그의 作詩에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 考察할 것이다. 그리고 詩의 世界란 言語로부터 스스로 배어나온 것이며 言語는 世界를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것이 된다는 理論에 따라 分析을 試圖할 것이다.

劉若愚교수는 『中國詩學』에서 詩를 「世界와 言語와의 探索」으로 보았다. 이것은 淸代의 王夫之，王士禛，王國維 등 直觀主義者의 內的 情緖와 外的 景物을 융합한 것이 詩이며，詩人의 情緖的 表現과 外界의 事物에 대한 反應과의 양자를 합쳐서 중시한다는 詩觀에 연유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발전시킨 것이다. 이 詩觀은 뉴크리티시즘派의 입장과 깊이 관련된 것이다.(7)

益齋의 詩는 모두 274首이고, 그 가운데 紀行詩만도 92首나 되어 양적으로 너무 많다. 이 小論에서는 우선 西蜀行 시기의 詩 28首만을 考察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益齋 紀行詩 硏究의 一部이다. 이 西蜀行 기간에 창작한 詞에 대해서는 이미 考察한 바 있다.(8) 臺本은 甲戌本(서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3)으로 한다.

Ⅱ. 西蜀行과 作詩

益齋 李齊賢은 1316년 西蜀行 기간에 詩 28首, 詞 18首를 지었는데, 『益齋亂藁』 第1卷의 앞부분에 詩 28首가 編次되어 있고 『益齋亂藁』 第10卷에 詞 18首가 編次되어 있다.

益齋年譜에, 「延祐三年, 丙辰, 先生三十歲, ……奉使西蜀, 所至題詠, 膾炙人口」라고 하였다. 또 『櫟翁稗說』(9)에, 「延祐丙辰, 予奉使祠峨眉山。道趙、魏、周、秦之地, 抵岐山之南, 踰大散關, 過褒城驛, 登棧道, 入劍門, 以至成都; 又舟行七日, 方到所謂峨眉山者」라고 하였다.

(6) 王國維, 『人間詞話』, p. 54.
(7) 李章佑역, 『中國詩學』, p. 249.
(8)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成立』, 檀國大學校 『中國文學報』 第4輯, 1979.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境界』, 檀國大學校 『東洋學』 第11輯, 1981.
(9) 李齊賢, 『櫟翁稗說』, 後 1—04.

益齋는 1316년 음력 7월 초순에 北京을 떠나 四川省 峨眉山으로 가서 그 해 10월 하순에 北京으로 돌아왔다. 嶽鎭海瀆의 祀使로서 元帝의 命을 받았던 것이다. 稗說의 路程과 詩詞에 나타난 月日, 節候, 地名을 보고 또 元代의 驛路[10]를 참고하면 益齋 西蜀行의 旅程과 作詩의 時日과 地點을 다음 表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現在地名	位 置	元代驛名	本書地名	年月日(음력)	詩詞의 題目
					鳳州龍湫(1—01)
					楊花(1—02)
北 京 市	40°00′N, 116°30′E	大都	燕 都		楊安普國公宴太尉瀋王于玉淵堂(1—03)
涿 縣	39°30′N, 116°00′E	涿州			
					〈沁園春〉「將之成都」(10—01)
			九 店	1316. 7. 7.	〈江神子〉「七夕冒雨到九店」(10—02)
				1316. 7. 7.	七夕(1—04)
定 興	39°15′N, 115°50′E		定 興		定興路上(1—05)(將之成都)
保 定 市	38°50′N, 115°30′E	保定			
新 樂	38°20′N, 114°40′E		新 樂	(鳴蜩)	〈鷓鴣天〉「過新樂縣」(10—03)
石家莊市	38°05′N, 114°30′E	眞定	中山府		過中山府感倉唐事(1—06)
井 陘	38°05′N, 114°10′E		井 陘		井陘(1—07)
太 原 市	37°55′N, 112°30′E	冀寧			豫讓橋(1—10)[11]
(汾 河)			(汾河)		汾河(1—09)[11]
沂 縣	37°25′N, 112°20′E		沂 縣		過沂縣感祁奚事(1—08)[11]
臨 汾 市	36°05′N, 111°30′E	平陽			
(黃 河)			(黃河)		黃河(1—11)
三門陝市	34°50′N, 111°10′E				
				(白露)	〈太常引〉「暮行」(10—08)
					〈浣溪沙〉「早行」(10—09)
文 鄕	34°35′N, 110°35′E				〈浣溪沙〉「黃帝鑄鼎原」(10—10)
華 陰	34°35′N, 110°05′E	華陰	華 陰	(秋月)	〈大江東去〉「過華陰」(10—11)
西 安 市	34°15′N, 108°55′E	奉元			
興 平	34°20′N, 108°35′E	興平	茂 陵	(秋草)	〈蝶戀花〉「漢虎帝茂陵」(10—12)
馬 嵬 坡	34°20′N, 108°20′E		馬 嵬		〈人月圓〉「馬嵬効吳彥高」(10—13)
寶 雞 市	34°25′N, 107°10′E	鳳翔			
大 散 關	34°15′N, 107°00′E		大散關	(秋鴻)	〈水調歌〉「過大散關」(10—14)
	33°10′N, 106°55′E		褒城驛		
			(棧道)		
					張希孟侍郞見示江湖長短句一篇以詩奉謝(1—12)
					奉和元復初學士贈別(1—13)

(10) 程光裕(등), 『中國歷史地圖』(台北：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4)上卷, p.50.
『中華人民共和國地圖集』(北京：地圖出版社, 1979).
『中華民國地圖集』(台北：國防硏究院, 1961).

(11) 旅程과 作品의 編次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1—10, 1—09, 1—08과 1—16, 1—20임. 이것은 Ⅲ.詮釋의 당해 작품을 참조할 것. 또 10—15도 어긋남. 이것은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成立」을 참조할 것.

現在地名	位 置	元代驛名	本書地名	年月日(음력)	詩詞의 題目
			(蜀道)		蜀道(1—14)
廣 元	32°30′N, 105°50′E	廣元			
	32°15′N, 105°30′E		劍 門		
成都市	30°40′N, 104°05′E	成都	成 都	1316. 8.15.	〈玉漏遲〉「蜀中中秋値雨」(10—16)
(錦江)			(錦江)	1316. 8.17.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1—15)
樂山市	29°35′N, 103°45′E				
沙 灣	29°25′N, 103°35′E		符文鎭		阻友符文鎭(1—17)
(峨眉山)	29°30′N, 103°20′E		(峨眉山)	1316. 8.24.	登峨眉山(1—18)
(雷洞坪)			(雷洞平)		雷洞平(1—19)
					〈菩薩蠻〉「舟中夜宿」(10—17)
靑 神	29°50′N, 103°55′E		靑 神		〈菩薩蠻〉「舟次靑神」(10—18)
				(窮秋)	思歸(1—21)
					上灘(1—22)
眉 山	30°05′N, 103°50′E		眉 州	(秋)	眉州(1—20)[11]
					促織(1—23)
					聽寒道士彈秋風(1—24)
成都市	30°40′N, 104°05′E	成都	成 都		諸葛孔明祠堂(1—16)[11]
				(秋草)	〈洞仙歌〉「杜子美草堂」(10—19)
					〈滿江紅〉「相如駟馬橋」(10—20)
		廣元			
		鳳翔			
		興平			
				(秋)	路上(1—25)
西安市	34°15′N, 108°55′E	奉元	長 安		〈木蘭花慢〉「長安懷古」(10—21)
華 陰	34°35′N, 110°05′E	華陰	華 陰	(淸秋)	〈水調歌〉「望華山」(10—15)[11]
靈 寶	34°20′N, 110°30′E		函谷關	(秋禾)	函谷關(1—26)
澠 池	34°45′N, 111°45′E		澠 池		澠池(1—27)
(崤 山)				1316.10.	二陵早發(1—28)
洛陽市	34°45′N, 112°25′E	河南			
孟 縣	34°50′N, 112°35′E		孟 津		渡孟津(1—29)
沁 陽	35°05′N, 112°55′E	懷慶			
汲 縣	35°20′N, 114°05′E	衛輝			比干墓(1—30, 31)
					〈木蘭花慢〉「書李將軍家壁」(10—22)
		眞定			
		保定			
		涿州			
北京市	40°00′N, 116°30′E	大都	燕 都		燕都送朴忠佐少卿東歸(1—32)
					和呈趙學士(1—33, 34)

이 旅路는 河北, 山西, 河南, 陝西, 四川省에 걸친 것으로, 中原民族들의 數千年 歷史가 이뤄진 곳이다. 益齋는 여기를 지나며 그 歷史上의 英雄들——倉唐, 韓信, 祁奚, 漢武帝劉徹, 豫讓, 諸葛亮, 杜甫, 司馬相如, 蘇洵, 蘇軾, 蘇轍, 漢高祖劉邦, 藺相如, 比干, 周武王姬發, 伯

夷, 叔齊, 唐太宗李世民, 魏徵을 만났다. 그리고 汾河, 黃河, 錦江, 華山, 峨眉山, 井陘口, 大散關, 棧道, 函谷關, 孟津의 崎險을 겪었다. 그리고 그 風物과 世事, 人情에 感興을 받았다.

益齋는 7월 초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100일 되는 기간에 詩 28首, 詞 18首 도합 46首의 創作을 내었다. 거의 2日에 1首가 되는 셈이니, 日記와 같은 密度다. 이 旺盛한 創作力의 秘密은 旅行과 관련지어 찾을 수 있겠다.

Ⅲ. 詮　　釋

益齋 李齊賢의 西蜀行 시기의 詩는 七夕(1—04)부터 比干墓(1—30, 31)까지 28首이다. 그러나 그 앞부분의 3首, 즉 鳳州龍湫(1—01), 楊花(1—02), 楊安普國公宴太尉瀋王于玉淵堂(1—03)과 그 뒷부분의 3首, 즉 燕都送朴忠佐少卿東歸(1—32), 和呈趙學士子昂(1—33, 34) 등이 西蜀行 詩와 관련이 있을지 함께 考察한다. 松都送朴忠佐北上(1—35) 이후의 작품은 이 考察에 들지 아니한다. 이 詮釋에서는 作品의 地名, 校勘, 詩形 및 心象, 象徵, 典故, 對偶 그리고 題材와 構成 등을 考察할 것이다. 詩의 翻譯과 注釋은 『국역 익재집』[12]에 따른다. 다만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比較하여 언급할 것이다.

1—01 鳳州龍湫

山前翠石雙扉啓, 石底澄潭萬丈深。明浸日光紛閃閃, 冷涵林影淨沈沈。
斯民政要滋湯旱, 彼相誰堪作說霖? 出沒魚兒休察見, 龍應先遣試人心。

鳳州는 黃海道 鳳山의 옛 이름이고, 龍湫는 그 곳의 神龍潭을 가리킨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 鳳山郡 부분에 이 詩가 引用되어 있다.[13]

七言律詩, 平聲 侵韻의 深沈霖心이 韻字이다.

鳳山의 神龍潭에는 비를 몰고 오는 龍의 전설이 있다. 비는 農民의 希望이므로 전설이 생긴 것이다. 殷나라 成湯과 傅說의 가뭄과 장마의 典故로 상징되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훌륭한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다. 益齋가 忠宣王의 부름을 받고 처음 北京으로 가면서 忠君愛國의 뜻을 이 詩로써 表明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詩를 『益齋亂藁』의 제 1 권의 제 1 편으로 실은 것이겠다.

首聯의 對句는 神龍潭의 바위와 물을 입체적으로 묘사했으며, 頷聯의 對句는 明浸日光의 밝은 視覺的 心象과 冷涵林影의 차가운 觸覺的 心象, 그리고 閃閃과 沈沈의 疊字에 의한 聽覺的 心象까지 써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

(1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익재집』(서울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9).
(1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서울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0) 제 5 권, pp. 321~29, 부록 p. 102.

鳳州를 中國의 地名으로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14)

1—02 楊花

似花非雪最顚狂，空濶風微轉渺茫。晴日欲迷深院落，春波不動小池塘。
飄來鉛砌輕無影，吹入紗窓細有香。却憶東皐讀書處，半隨紅雨撲空床。

늦봄에 날리는 버들개지를 보며 느끼는 閑情을 그렸다. 七言律詩，平聲 陽韻의 狂茫塘香床이 韻字이다.

이 詩의 心象들은 고도로 感性的인 것이다. 花，雪의 흰색，深院落과 小池塘의 푸른 색，落花를 가리키는 紅雨의 붉은 색과 같은 視覺，輕無影의 觸覺，細有香의 嗅覺，그리고 讀書 소리의 聽覺을 총동원하여 閑情이라는 미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을 사로잡아 表現하려 했다.

버들개지는 이별한 뒤의 허전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15) 이것이 『益齋集』의 두 번째 詩라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면，아무래도 益齋가 처음 北京에 와서 혼자 한가로이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1—03 楊安普國公宴太尉瀋王于玉淵堂

湖上華堂㢠爽闓，國公開宴樂吾君。十千美酒鸕鷀杓，二八佳人翡翠裙。
菡萏香中聽過雨，菰蒲影際見行雲。笙歌未歇輪蹄鬧，漠漠西山日欲曛。

楊安普는 당시 元나라 朝廷의 元老로서 忠宣王과의 관계가 자별했다. 『高麗史』(16)에，

「忠肅王元(1314)年，(元)帝命(忠宣)王留(元)京師。(忠宣)王搆萬卷堂于燕邸。……時有鮮卑僧上言(元)帝，師八思巴製蒙古字，以利國家，乞令天下立祠，比孔子。有詔公卿耆老會議。國公楊安普力主其議。(忠宣)王謂安普曰：『師製字，有功於國，祀之自應古典；何必比之孔氏？孔氏百王之師，其得通祀以德，不以功，後世恐有異端。』言雖不納，聞者韙之。」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國公은 國王，郡王，國公，郡公，縣公，侯，伯，子，男의 차례로 되는 九等爵의 하나이다.

太尉，瀋王은 여기서 忠宣王을 가리킨다. 忠宣王이 아들(忠肅王)에게 讓位한 뒤 元의 皇帝에게서 받은 官職과 爵位이다.

北京市 서쪽 三里河路의 남쪽에 玉淵潭公園(17)이 있다. 여기에는 10萬m^2의 큰 호수가 있는데 金代부터 帝王貴族의 遊樂地로 유명했다. 지금은 여름에 시민들이 여기서 水泳을 할 수 있다. 詩의 首聯의 描寫로 보아 玉淵堂은 바로 玉淵潭 호수가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頷·頸聯

(14) 민족문화추진회，『국역 익재집』 제 1 권，p. 27.
柳晟淵，『益齋의 詩 硏究』p. 163.
(15) 池榮在편역，『中國詩歌選』(서울：乙酉文化社，1973)，p. 560.
(16) 『高麗史』，第34卷，
(17) 周沙塵，『古今北京』(香港：三聯書店，1980)，p. 82.

의 對句에서 美酒와 佳人이 있는 호사스러운 잔치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이 詩는 『益齋集』의 세번째 작품인데 네번째 작품부터는 西蜀行의 紀行詩가 시작된다. 益齋가 당시 세계문화의 중심의 하나였던 北京에서 元朝의 禮遇를 받는 忠宣王을 모시고 지내는 생활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배경이 되어 西蜀行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七言律詩, 平聲 文韻의 聞君裙雲燻이 韻字이다.

1—04 七夕

> 脉脉相望邂逅難, 天敎此夕一團欒。鵲橋正恨耿波遠, 鴛枕那堪夜漏殘?
> 人世可能無聚散, 神仙也自有悲歡。猶勝羿婦偸靈藥, 萬古羈棲守廣寒!

이 七夕은 서기 1316년 음력 7월 7일이다. 益齋長短句에는 西蜀行의 첫 작품으로 〈沁園春〉「將之成都」(10—01), 두번째 작품으로 〈江神子〉「七夕冒雨到九店」(10—02), 세번째 작품으로 〈鷓鴣天〉「過新樂縣」(10—03)이 있다. 이것이 旅程에 따른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18)

七言律詩, 平聲 寒韻의 難欒殘歡寒이 韻字이다.

1년에 한 번씩 銀河水의 烏鵲橋에서 만나는 남편 牽牛, 아내 織女와의 관계, 靈藥 훔쳐 먹고 廣寒宮에 도망가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남편 羿, 아내 姮娥와의 관계, 그리고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 益齋와 아내와의 관계를 3重으로 對比했다. 두 典故는 하나씩 볼 때 너무 알려졌기에 新鮮感이 없지만 두 개의 典故를 對照함으로써, 새로운 評價가 덧붙여지고 새로운 世界가 探索된 것이다.

〈江神子〉「七夕冒雨到九店」(10—02)을 보면 益齋는 비 오는 나그네 길에 七夕을 맞아 잠 못이루면서 故鄕과 妻子를 생각하는 情을 노래하고 있다.

1—05 定興路上(將之成都)

> 雨餘泥滑路逶迤, 兀兀征鞍撼四支。安坐豈償男子志? 遠遊還愧老親思。
> 野桑翳翳風來少, 村樹茫茫日下遲。早晩歸來報明主, 却尋鷄黍故人期。

定興은 지금 河北省 定興이다. 題目에 붙은「將之成都」라는 原注에서 이것이 西蜀行의 第一篇임을 알 수 있다.

七言律詩, 平聲 支韻의 迤支思遲期가 韻字이다.

首聯의 雨, 泥, 路, 征鞍, 四支의 心象으로 묘사된 것은 비 오고 난 뒤의 고달픈 나그네 길이고, 頸聯의 野桑, 風, 村樹, 日의 心象으로 묘사된 것은 여름이 지나고 난 뒤의 시원하면서도 느긋한 나그네 길이다. 頷聯의 壯志와 孝道, 尾聯의 忠君과 友情의 情緖의 차이가 그 外景과 일치된다.

(18) 池榮在, 「益齋長短句의 成立」, p.45.

여기서는 長途 떠나는 마음을 「安坐豈償男子志」라 하였는데, 〈沁園春〉「將之成都」(10—01)에서도 「安用平生, 㨉黔席暖, 空使毛群歎臥駝」라고 하였다.

1—06 過中山府感倉唐事

倉唐何爲者？魏國一陪臣。敎詩又說禮，幽語皆中倫。
一言悟人主，遠子復相親。古今竹帛上，誰其君與鄰？
至誠說狄相，純孝稱封人。願令四海民，共祠此三仁。
一見一感發，天理不胥淪。

中山府는 지금 河北省 石家莊市인데, 元나라 때의 驛名은 眞定이었다.

五言古詩, 平聲 眞韻의 一韻到底, 臣倫親鄰人仁淪이 韻字이다.

益齋는 中山府를 지나면서 그 곳을 舞臺로 하고 倉唐을 主人公으로 하고 忠孝를 題材로 한 道德劇을 선명히 보았다. 그리고 다시 狄仁傑과 潁考叔의 典故를 聯想하였다. 益齋가 儒者로서 입으로만 忠孝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王室 내부의 복잡한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父母子息 간의 정리에 더 민감했을 것이다.

五言古詩의 소박한 形式인데, 특히 中唐 이후부터 시작되어 宋代에 유행한 散文套의 표현을 썼다. 外見上으로는 事件을 진술한 것 뿐인 듯하지만, 이 外面世界는 內面經驗의 光彩 속에서 觀察되었다.

1—07 井陘

岡巒迴合井陘口。驅馬崎嶇登翠阜。英雄事去幾千載？尙有威名凜如在。
却憶淮陰布衣時，風雲壯志無人知；一朝登壇輔眞主，下視噲等如嬰兒。
火旂熠熠驚趙壁，鯨鯢血汚蓮花鍔；燕齊草木靡餘風，劉項乾坤傾一諾。
千金不購廣武君，萬全奇策誰當陳？乃知百戰戰必勝，不在多多益辦只在屈己能從人。

井陘은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河北省 井陘이다. 河北省과 山西省의 경계를 달리는 太行山脈을 넘는 古來의 길목이다.

齊는 原本에 齋로 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淮陰侯 韓信은 이 井陘에서 趙나라의 大軍을 격파하고 齊王으로 封 받았다. 益齋는 歷史의 이 드라마가 펼쳐진 現場에 이르러 韓信과 李左車, 項羽, 劉邦 등의 모습을 되새긴다. 그리고 實力이 우세했던 項羽와 대결한 劉邦을 도와 결국 統一天下의 偉業을 이루는 큰 공을 세운 韓信에게 讚嘆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끝聯의 屈己從人의 정신을 높이 샀다.

七言古詩, 4次 換韻하는데, 그것이 內容上의 段落과 一致한다. 第1段은 上聲 有韻의 口阜와 去聲 隊韻의 載在, 第2段은 平聲 支韻의 時知兒, 第3段은 入聲 錫韻의 壁과 藥韻의 鍔諾, 第4段은 平聲 文韻의 君과 眞韻의 陳人이 韻字이다.

第1段은 第1聯에서 井陘의 形勢를 묘사하고 讀者까지 現場으로 인도한 뒤 第2聯에서 그 現場에 임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序言이다. 第2段은 韓信이 미천한 신분에서 大將이 되는 變身을 그렸다. 第3段은 井陘에서의 勝戰과 그 意義를 논했다. 第4段은 韓信의 百戰百勝의 原因을 밝혔다.

이 詠史詩에는 歷史의 敎訓을 강조하는 道學者의 입장이 보인다. 긴 歷史 이야기를 간결한 引用이나 典故로 처리하고 또 換韻으로 요령있게 段落을 짓는 技巧가 뛰어난다.

1—08 過祁縣感祁奚事

吾愛晉朝祁大夫，爲君能擧午與狐。乾坤自有公道在，肯以恩怨爲賢愚。
不救遺直困陸沉，拂袖一去雲無心。當時囁呫來相謝，叔后豈是眞知音？
嗟哉此道日已微，對面九疑多是非。臨歧弔古一長嘆，吾非斯人誰與歸？

祁縣은 지금도 이름이 같은 山西省 祁縣이다. 이 곳은 春秋時代 晉나라 大夫 祁奚의 封邑이었다.

七言古詩, 3次 換韻하는데, 그것은 內容上의 段落과 一致한다. 第1段은 平聲 虞韻의 夫狐愚, 第2段은 平聲 侵韻의 沉心音, 第3段은 平聲 微韻의 微非歸가 韻字이다.

第1段은 祁奚가 祁午와 解狐를 천거한 것이 공평하다고 찬미하고, 第2段은 叔后의 罪名을 벗겨 준 일과 두 사람의 의연한 자세를 찬미하고, 第3段에서는 結論으로서, 不信의 世態를 한탄하면서 主人公 祁奚에 대한 무한한 思慕의 뜻을 담았다. 詠史詩로서 교훈이 강조되었다.

표연히 떠나는 祈奚의 象徵으로 雲이 적절했고, 叔后의 태도와 囁呫의 의태어는 날카로운 對照를 보인다. 또 吾愛, 爲君能, 肯以……爲, 嗟哉, 吾非斯人의 散文套는 이 詠史詩의 敍事性과 걸맞는다.

1—09 汾河

汾河日夜流浩浩，兩岸行人幾番老？陶唐舊物山獨在，萬古興亡青未了！
劉郞曾此歌秋風，簫鼓動地愁魚龍；平生謾有凌雲志，未見仙人氷雪容。

汾河는 山西省 寧武(39°00′N, 112°15′E) 서쪽의 管涔山에서 發源하여 山西省을 西南으로 흐르다가 榮河(35°25′N, 110°30′E)의 북쪽에서 黃河와 합류한다. 이 詩는 汾河의 어느 지점에서 썼는지 알 수 없다. 旅程으로 보면 太原市 부근의 豫讓橋에서부터 汾河를 따라 내려가다가 祈縣이 나온다. 여기 編次는 祈縣(1—08), 汾河(1—09), 太原의 豫讓橋(1—10)로 되어 있다.

益齋는 汾河 가에 나아가, 거기서 노닐었던 一世의 英雄 漢나라 武帝 劉徹과 그의 秋風辭를 생각하며 이 詩를 지었다.

七言古詩, 前半과 後半으로 換韻하였다. 前半은 上聲 皓韻의 浩老와 篠韻의 了가 韻字이고, 後半은 平聲 東韻의 風과 冬韻의 龍容이 韻字이다. 각각 古詩에서는 通用되는 韻이다.

前半部에서는 汾河 강물의 흐름에서 덧없는 人生의 흐름과 歷史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後半部에서는 호사스럽던 劉徹을 생각하면서 山河의 永遠性에 對照되는 人生의 無常함을 노래했다. 劉徹의 秋風辭에 표현된 感情도 바로 時間의 흐름에서 젊음이 가고 늙음과 죽음이 가까와지는데 대한 슬픔이었다.[19] 益齋는 이것을 引用하여 그 감정을 더욱 深化시켰다.

1—10 豫讓橋

一片荒橋石，誰留國士名？山含千載憤，日照九泉誠。
不爲恩難報，徒求事易成。此言眞有激，邪佞合心驚。

豫讓橋는 지금 山西省 太原市에 있다.[20] 太原市는 元代의 驛名이 冀寧이었다.

豫讓은 戰國時代 智伯의 忠臣이었는데 主君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이 다리에서 被殺되었다.

五言律詩, 平聲 庚韻의 名誠成驚이 韻字이다. 首聯의 荒橋石과 國士名은 並置가 포함된 複合心象이다. 詩人은 이 둘을 비교하지 아니했으나 兩者 사이에 암시된 類推는 명백하다. 돌보는 이 없는 다리, 알아주는 이 없는 이름이지만 모두 永遠性을 가졌다는 점은 같다는 것이다. 頷聯은 豫讓을 칭송했다. 山이 푸른 것은 千年의 그 憤氣 때문이오, 해가 밝은 것은 九泉의 地下에서 솟아오르는 그 精誠때문이라는 對句가 정교하다. 頸聯과 尾聯에서 烈士를 기리는 것은 단순한 복수때문이 아니라「二心 먹는 것은 不忠」이라는 그 큰 뜻 때문이라고 밝힌다.

1—11 黃河

黃河西流自崑崙，漢使乘槎肯窮源。崑崙山高幾千仞，下河倒瀉流渾渾。
崩騰九曲轉坤軸，浩蕩萬里浮天垠。有如楚漢戰垓下，千兵萬馬驅平原。
橫流往往不可止，泛溢四野愁黎元。擘開兩山俾東注，辛苦巨靈留掌痕。
蹇予少年遊海上，豪氣欲跨莊生鯤。西江眞堪一口吸，雲夢不足胸中呑。
今日沙頭欲解纜，兀坐不覺驚心魂。腥風打頭浪如屋，長帆遠與山相掀。
篙師絕叫汗流瀋，日暮未到南岸村。我不是焚舟孟明視，期爲秦民一雪無窮寃；
又不是投璧晉公子，誓與舅氏不負平生言。鐵牛有知應解笑，胡爲涉險西南奔？

益齋가 中國旅行에서 黃河를 처음 만나는 곳은 茅津渡로 추정된다. 元代의 驛路로, 冀寧(지금 太原市)에서 平陽(지금 臨汾)을 지나 汾河를 따라 西南으로 내려오다가 黃河를 건너는 데에는 風陵渡(34°35′N, 110°20′E), 茅津渡(34°50′N, 111°10′E), 孟津(34°50′N, 112°45′E)의 세 곳이 있다. 이 詩의 끝 聯에 나오는 鐵牛를 모신 鐵牛廟가 지금 三門峽市의 茅津渡에 있는 것이다. 益齋가 西蜀行에서 돌아올 때에는 渡孟津(1—29)으로 알 수 있듯이 孟津이었다.

詩는 黃河의 壯觀을 묘사하면서 詩人의 壯志를 기탁하였다.

七言句를 爲主로 했지만 雜言의 古詩다. 平聲 元韻의 崙源渾垠原元痕鯤呑魂掀村寃言奔을 쓴

(19) 李章佑역, 『中國詩學』, p. 75.
(20) 『史記』, 第86卷：豫讓伏於所當過之橋下。正義：汾橋下架水在并州晉陽懸(太原市)東一里。

그 一韻到底에서 氣勢의 奔放함을 느낄 수 있다. 內容에 따라서는 八言, 九言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辭說을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李白의 蜀道難의 들쭉날쭉한 長短句가 蜀道의 崎嶇함을 상징했다면, 이 長篇의 자유로운 辭說은 黃河의 奔放함과, 거기에 못지 않은 作者精神의 奔放함을 느끼게 한다.

詩는 모두 5段으로 나눌 수 있다. 第1段(第 1,2,3聯)은 黃河의 길이를, 第2段(第 4,5,6聯)은 그 세찬 물 줄기를, 第3段(第 7,8聯)은 作者의 壯志를, 第4段(第 9,10,11聯)은 黃河를 건너는 실제의 經驗을, 第5段(第 12,13,14聯)은 西蜀行의 의미를 각각 표현했다.

이 詩는 第4段에서 실제로 渡河하는 경험을 말할 때에는 典故를 쓰지 않고 白描로 했다. 讀者는 자기가 배를 탄 느낌을 받는다. 뱃사공이 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등줄기의 번쩍거리는 땀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는 典故를 많이 썼다. 多樣한 狀況을 경제적으로 包括하기 위한 그 존재이유가 성립된다. 第5段에서는 孟明視의 焚舟, 晉文公의 投璧, 그리고 鐵牛의 典故가 쓰였다. 益齋의 西蜀行의 의미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것이라는 점,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만 한다는 점을 만약 典故를 쓰지 않고 直說했다면, 自己憐憫과 自己欺瞞 속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21) 典故의 사용이 적절했다.

1—12 張希孟侍郞見示江湖長短句一篇, 以詩奉謝

天斬文章數百年, 一時輸與濟南賢。縱橫寶氣豐城劍, 要妙古音淸廟絃。
便覺有功名敎事, 誰言費力短長篇! 興來三復高聲讀, 萬里江山只眼前。
原注：張侍郞題朱晦菴祠堂云：公若有靈, 應笑我徒費力短長篇。
附錄：張侍郞詩
三韓文物盛當年, 刮目靑雲又此賢。壯志玉虹纏古劍, 至誠石虎裂驚絃。
一鞭嵐翠遊山騎, 滿紙珠璣詠月篇。此去浣花春政好, 白鷗應爲子來前。

張養浩(字 希孟, 1269~1329)는 元代 文學의 主流의 하나인 散曲의 大家다. 그는 散曲에서 늘 官吏生活의 부자유함을 한탄하다가 官職을 벗은 뒤로는 田園에 은퇴하여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냈다. 이 和答詩로서 益齋는 張養浩와 交分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首·頷聯에서는 張養浩의 文學에 대한 칭송을 豐城劍과 淸廟絃의 典故로 압축했다. 頸聯에서는 그 文學이 특히 短長句로 이뤄진 散曲임을 밝혔다. 尾聯에서는 作品을 통한 友情의 깊이를 확인했다.

張養浩의 詩는 益齋가 三韓의 賢人이라 추키면서 그 壯遊를 축복했다. 詩人으로서 詩聖 杜甫의 草堂을 찾아가는 것을 부럽게 여긴 뜻도 포함될 것이다. 다만 浣花春政好의 春은 계절과 맞지 않는다. 아마 浣花溪의 花에서 聯想된 象徵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紀行詩는 名勝古蹟만 찾고 歷史의 英雄豪傑만 찾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의 훌륭한

(21) 李章佑역, 『中國詩學』, p. 190.

人格과의 만남도 중요하다면 和答詩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七言律詩, 平聲 先韻의 年賢絃篇前으로 次韻했다.

1—13 奉和元復初學士贈別

昔從傾蓋眼能靑, 載酒同遊遍洛城。直欲執鞭如魯叟, 豈惟結襪比王生?
感公燈火三更話, 慰我關山萬里行。更得新詩入囊褚, 劍南人識汝南評。
附錄 : 元學士詩
峨眉山色夢中靑, 人自雞林使錦城。九域圖經歸一姓, 四川風物契三生。
捫參歷井眞虛語, 詠月吟風足此行。細問孔明當日事, 遼東却對幼安評。

元明善(字 復初, 1269~1322)은 春秋에 정통한 大學者다. 그는 詔에 의해 尙書의 經文에서 政要에 관련되는 것을 節選해 올린 일도 있다. 그는 여기서 益齋와 詩篇을 교환하지만, 아마 益齋의 文學보다는 學問에서 더 깊은 交流가 있었을 것이다.

首聯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다정한 관계를 진술하고 頷聯에서는 그것이 존경하는 友情임을 확인한다. 頸聯의 對句는 이 次韻이 단순한 應酬의 文字가 아니라 眞情의 吐露임을 느끼게 한다.

元明善의 詩는 과연 학자답게 典故로 가득하다. 出仕한 西쪽의 孔明과 隱退한 東쪽의 幼安을 비교하면서 儒者로서 東西를 달리는 益齋에 대한 깊은 友情을 보였다.

七言律詩, 平聲 靑韻의 靑, 庚韻의 城生行評으로 次韻했다.

1—14 蜀道

此山從古有, 此道幾時開? 不借夸蛾手, 誰分混沌胚?
天形旂尾擲, 岡勢劒鋩摧。霧送千林雨, 江奔萬里雷。
班班穿薈蔚, 矗矗上崔嵬。下馬行難竝, 逢人走却廻。
驚猿空躑躅, 去鳥但徘徊。才喜晨光啓, 俄愁暮色催。
金牛疑妄矣, 流馬笑艱哉。寄謝題橋客, 何須約重來?

蜀道는 험하기로 유명한 蜀의 棧道를 가리킨다. 李白도 蜀道難으로 그 길의 험함을 노래했다. 五言排律, 平聲 灰韻의 開胚摧雷嵬廻徊催哉來가 韻字이다.

詩는 第1, 2聯에서는 蜀道의 아득한 起源에 대해 물었다. 夸蛾, 女媧의 神話를 들어 混沌의 宇宙를 누가 나서서 秩序 잡았나를 상상해 보았다. 그 다음에는 7聯의 對句가 잇닿는다. 第3聯은 뾰족한 산 위의 하늘 한 조각, 第4聯은 안개와 비와 우뢰치는 강물, 第5聯은 울창한 숲과 치솟은 봉우리, 第6聯은 人馬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 第7聯은 날쌘 원숭이도 하늘 나는 새도 머뭇거리는 어려운 길, 第8聯은 아침 늦게 밝고 저녁 일찍 저무는 길, 第9聯은 아쉬운 金牛나 流馬이지만 허망한 것임을 읊는다. 이처럼 교묘한 對句로써 蜀道의 어려움을 묘사했다. 第10聯에서는 司馬相如의 典故를 들어 司馬相如는 다시 온다고 했지만 益齋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말을 맺었다. 蜀道의 어려움이 결론이다.

蜀道의 崎險을 몸소 겪고 큰 感動을 받은 作詩의 動機가 강력하여 典故에 매달리지 않고도 7聯 연속의 對句를 一氣呵成할 수 있었다. 이 筆力은 과연 李白의 蜀道難과는 또 다른 하나의 世界를 探索해냈다.

1—15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

錦江江上白雲秋，唱徹驪駒下酒樓。一片紅旂風閃閃，數聲柔櫓水悠悠。
雨催寒犢歸漁店，波送輕鷗近客舟。孰謂書生多不遇，每因王事飽淸遊。

成都에서 珉江을 따라 내려가 樂山을 지나 宜賓에서 揚子江과 합류하여 重慶까지 가는 水路가 元代의 驛路에서 활용되었다.(22)

益齋는 8월 15일에 成都에 있었다. 秋夕인데 비가 와서 심란했던 듯하다.(23) 그러다가 17일에 成都에서 배를 타고 7일 뒤에 峨眉山에 이른 것이다.

遇는 原本의 偶를 바로잡은 것이다.

七言律詩, 平聲 尤韻의 秋樓悠舟遊가 韻字이다.

首聯의 錦江, 白雲, 秋, 驪駒, 酒樓의 心象은 흥겹다. 頷聯의 一片紅旂, 數聲柔櫓의 色과 聲의 對比는 風閃閃, 小悠悠의 擬態語의 對比와 함께 신선한 對句를 이루었다. 頸聯의 雨, 寒犢, 漁店, 波, 輕鷗, 客舟의 心象은 舟運으로 가는 沿岸의 한가한 풍경의 描寫이며, 한가한 感情의 表現이다. 尾聯에서 大旅行家 益齋의 自負를 볼 수 있다. 洪萬宗은 『小華詩評』에서 이 詩를 「精緻」하다고 評했다.(24)

1—16 諸葛孔明祠堂

群雄蜂起事紛挐，獨抱經綸臥草廬。許國義高三顧後，出師謨遠七擒餘。
木牛流馬誰能了，羽扇綸巾我自如。千載忠誠懸日月，回頭魏晉但丘墟。

諸葛亮(字 孔明, 181～234)은 死後에 忠武侯의 諡號를 받았으므로 그의 祠나 廟를 武侯祠라 부른다. 中國에 열 몇 개나 있지만 成都의 武侯祠가 규모나 역사로 보아 제일이다. 현재 면적이 37,000m^2되며 1961년에 中國國務院에서는 全國重要文化財의 保護單位로 지정했다.(25)

七言律詩, 平聲 魚韻의 挐廬餘如墟가 韻字이다

詩는 有名한 諸葛亮의 이야기를 요령있게 引用하고 尾聯에서 그 忠誠이 日月과 같다고 自己의 解釋을 주장한다. 詠史詩의 典型이다.

成都는 益齋가 峨眉山으로 갈 때와 峨眉山에서 올 때의 두 번 들르지만, 이 詩는 돌아 올 때

(22) 程光裕(등), 『中國歷史地圖』, 上卷, p.50.
(23) 益齋長短句, 〈玉漏遲〉「蜀中中秋値雨」(10—16).
(24) 朴性奎, 「益齋 漢詩의 硏究」, 碩士學位請求論文(서울 : 高麗大學校大學院, 1976), p.14 再引.
(25) 『三國志の旅』(東京 : 講談社, 1981), p.104, p.132.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詩 앞에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1—15)이 있어 이미 成都를 떠났음을 밝히고 있다. 益齋長短句에는 〈洞仙歌〉「杜子美草堂」(10—19), 〈滿江紅〉「相如駟馬橋」(10—20)가 〈菩薩蠻〉「舟中夜宿」(10—17), 〈菩薩蠻〉「舟次靑神」(10—18) 뒤에 있다. 峨眉山에 갈 때는 중요한 公務를 지닌 몸이라 行路를 재촉했을 것이고, 公務를 遂行한 뒤 돌아 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成都의 古蹟인 武侯祠, 杜甫草堂, 駟馬橋를 방문하고, 또 吟詩하였을 것이다.

1—17 阻友符文鎭

峽雲蓬勃送秋霖，野店荒凉生暮陰。剛厭灘聲戰窓牖，更堪山瘴襲衣衾？
百年身世千般計，萬里庭闈一片心。安得長風吹掃盡，仰看紅日上重岑？

符文鎭은 지금 四川省 沙灣(29°25′N, 103°35′E)이다.(26) 제목 阻友符文鎭은 阻于符文鎭이거나 또는 阻雨于符文鎭의 誤記일 것이다.(27)

成都에서 樂山까지는 珉江을 따라 내려가는 水路이고, 樂山에서 符文鎭까지는 大渡河를 거슬러가는 水路이다. 益齋는 符文鎭에서 下船하여 峨眉山까지 직선거리 25 km되는 陸路를 택하게 되었다.

首·頷聯은 가을 장마 속 쓸쓸한 주막과 장기 서리는 기후의 外景을 묘사했다. 頸聯에서는 자기 일신의 걱정에서부터 만리 밖에 계신 부모님 염려로 확대된다. 景에서 情이 우러나온 것이다. 尾聯에서는 다시 外景 이야기로 넘어가지만 內包된 의미는 忠誠心임이 분명하다. 비구름은 간신배를, 바람은 충신을, 해님은 임금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讀者가 느끼기는 어렵지 않다.

1—18 登峨眉山

蒼雲浮地面，白日轉山腰。萬像歸無極，長空自寂寥。

峨眉山(29°30′N, 103°20′E)은 높이 3099 m의 山으로서, 浙江省 舟山列島의 普陀山(28)과 함께 中國 佛敎 聖地의 하나다.

題目의 峨는 原本의 蛾를 바로잡은 것이다.

五言絶句, 平聲 蕭韻의 腰寥가 韻字이다.

起·承句의 對偶는 蒼雲, 地面, 白日, 山腰의 心象으로서 구름도 땅에 깔리고 해도 산허리에서 도는 높은 山을 묘사했다. 轉句는 至高淸淨한 경계가 바로 無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哲學的으로 풀이한 뒤, 結句에서는 다시 寂寥한 頂上의 外景을 묘사했다.

7월 칠석 전에 北京을 떠나 8월 추석도 지난 24일, 거의 50일 동안의 천신만고 끝에 峨眉山에 오르는 益齋의 감개가 바로 讀者에게도 와 닿는다. 五言絶句의 가장 압축된 言語가 보배롭다.

(26) 譚其驤편, 『中國歷史地圖集』(上海 : 地圖出版社, 1982) 第 6 卷, p.71.
(27) 陶淵明의 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于規林 참조.
(28) 1319년, 益齋 江南行의 目的地였음.

1—19 雷洞平

胡孫梯高天尺五，石路蜿蜒細於縷。路傍大樹驚白晝，七十二神開洞府。
奇巖壁立下無底，鴻洞雲嵐自呑吐。崖崩石出絕難度，惡木縱橫若相補。
溉溉何處瀉奔流？俯聽遙空喧萬鼓。有時雨雹亂晴天，過客屛氣誰敢侮？
腐儒一見動心魄，兩眼昏花汗如雨；也知平生足游觀，何事窮山愁仰俯？
君不見天上金門似海深，仗衛森嚴羅九虎？狂夫雀躍蹈危機，達士龍潛卧還堵。

雷洞平은 峨眉山에 있다.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은[29] 雷洞坪항목에 「在四川峨眉縣峨眉山中弓背山之上。有寺院，空濛黑暗，長無天日，寺左懸崖陡壁，人跡罕到」라고 하였다.

七言句를 爲主로 한 雜言의 古詩이다.

上聲 麌韻의 五縷府吐補鼓侮雨俯虎堵가 韻字이다.

모두 10聯이나 되는 長篇이다. 第1聯에서 第6聯까지는 景觀을 묘사했고, 第7,8聯은 外景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感情을 진술했고, 第9,10聯에서는 위태로운 경치에서 느낀 경험을 處世의 敎訓으로 다짐하였다.

이 詩에서는 흔한 對句나 典故를 극히 제한하면서 여러 가지 心象과 象徵을 활용하여 言語의 探索을 과감히 試圖하였다. 比較를 내포한 心象은 細於縷, 如雨, 似海深처럼 명백히 드러나기도 하고 喧萬鼓, 羅九虎처럼 암시되기도 한다. 胡孫梯는 代替를 내포한 心象이요, 惡木은 轉移感覺的 心象이다.[30] 七十二神은 象徵이다. 그 밖의 石路, 大樹, 奇巖, 鴻洞, 奔流, 그리고 白晝, 晴天, 雲嵐, 雨雹 등의 단순 심상도 신선하다.

1—20 眉州

吾大人三昆季，俱以文筆顯於東方。伯父、季父相次仙去，唯公無恙，年今七十有奇。若使北來得與中原賢士大夫進退詞林間，雖不敢自比於蘇家父子、亦可以名動一時。顧水陸千里，干戈十年，所處而安，無慕乎外，故天下莫有知之者。

眉山僻在天一方，滿城草木秋荒涼。過客停驂必相問，道傍爲有三蘇堂。
三蘇鬱鬱應時出，一門秀氣森開張。渥洼獨步老騏驥，丹穴雙飛雛鳳凰。
聯翩共入金門下，四海不敢言文章。邇來悠悠二百載，名與日月爭輝光！
君不見鷄林三李亦人傑，翰墨壇中皆授鉞？韓泊繩樞笑無用，王家珠樹譽成癖；
機雲不入洛中來，皎皎滄洲委明月。兩雄已矣不須論，家有吾師今白髮。
原注：坡云易可忘憂家有師。

眉州는 지금 四川省 眉山이다. 三蘇는 唐宋八家 가운데 蘇洵, 蘇軾, 蘇轍의 三父子다. 이들을 기리는 三蘇祠가 眉山에 있다.[31]

益齋는 三蘇祠를 방문하고 그 三父子에 대해 敬慕하면서, 동시에 자기 집안의 三李를 내세

(29) 『中國古今地名大辭典』(臺北：商務印書館, 1966), S.V. "雷洞坪".
(30) 李章佑역, 『中國詩學』, pp. 148～49.
(31) 明, 『一統志』：三蘇祠，在眉州治西南，即宋蘇洵故宅。

웠다.

七言句를 爲主로 한 雜言의 古詩이다. 前6聯은 平聲 陽韻의 方涼堂張凰章光이 韻字이다. 後4聯은 入聲 屑韻의 桀, 月韻의 鉞月髮, 陌韻의 癖이 韻字이다.

前6聯은 三蘇에 관한 것인데, 第1,2聯은 三蘇堂의 景觀이고 第3,4,5,6聯은 그 評價다. 後4聯은 三李에 관한 것이다. 前後를 가르는 中間에는 古樂府에서 讀者, 聽衆을 作品의 世界로 바로 끌어들이는 데 흔히 쓰는 君不見을 挿入하였다.

音聲象徵에 있어 陽韻의 韻字는 「高明美大」의 뜻이 담기고 月韻의 韻字는 「抽引上穿」의 뜻이 담긴다.(32) 前6聯은 三蘇의 名聲에 걸맞게 陽韻을 썼고, 後4聯은 三李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다지기 위해 月韻을 썼다.

이 詩는 풍부한 感情을 표현하기 위해, 또 복잡한 狀況을 제시하기 위해 文字使用의 經濟가 되는 典故를 많이 썼다. 특히 第8聯의 韓湘와 王勃, 第9聯의 陸機 형제의 典故를 써서 讀者의 聯想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만약 三李가 훌륭하다고 그냥 直敍했다면 讀者의 共感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뭏든 高麗人으로서 中土에서 이처럼 堂堂히 自己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장한 일이다.

1—21 思歸

扁舟漂泊若爲情, 四海誰云盡弟兄? 一聽征鴻思遠信, 每看歸鳥嘆勞生。
窮秋雨鎖青神樹, 落日雲橫白帝城。認得蓴羹勝羊酪, 行藏不用問君平。

思歸는 지루한 旅路에서 문득 故鄕에 돌아가고 싶다, 隱退하고 싶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詩를 쓴 地名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頸聯의 窮秋雨鎖青神樹로 보아, 四川省 青神으로 추정할 수 있다. 益齋長短句에는 〈菩薩蠻〉「舟次青神」(10—18)이 있다.

鎖는 原本의 鏁를 바로잡은 것이다.

여행이 지겨워서 頷聯의 征鴻, 歸鳥의 象徵으로 고향가고 싶은 뜻을 말했다. 頸聯의 對句를 보면 가을 비에 젖는 青神의 숲은 어두운 實景이오, 석양 구름에 걸린 白帝城은 환한 幻想이지만, 모두 四川地方의 아름다운 경치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와도 고향가고 싶다는 결정적인 뜻을 張翰과 嚴君平의 典故로 표현했다.

白帝城은 四川省 奉節(31°00′N, 109°30′E)에 있다. 四川盆地에서 揚子江 水路로 빠져나가는 길목이다. 다만 益齋의 旅路와는 동떨어진 곳이지만 李白의 「朝辭白帝彩雲間」句가 聯想되어서 對句에 끌어 쓴 것이겠다.

1—22 上灘

(32) 黃永武, 『中國詩學』(臺北 : 巨流圖書公司, 1976), 設計篇, p. 158.
牛島德次(등), 『言語』, 中國文化叢書(東京 : 大修館, 1967), p. 83.

乘流東去泝流還，客寢何時得小安？水落沙堆銖亦重，崖崩石出寸猶難。
不妨聽雨留連睡，且喜逢山子細看。只媿鄴人牽百丈，汗流終日走江干。

成都에서 峨眉山으로 갈 때에는 珉江의 흐름을 타고 쉽게 갔으나, 올 때에는 강물을 거슬러 어렵게 오는 것이다.

頷聯은 水落石出의 成語를 둘로 갈라 水落沙堆와 崖崩石出로 對偶를 만든 것이 정교하다. 어려운 뱃길의 實景을 잘 묘사했다. 頸聯은 留連의 雙聲과 子細라는 複音節의 擬態語로 對偶를 이뤘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빗소리 들으며 늦잠 자고 찬찬히 산 구경하는 멋을, 大旅行家 益齋는 즐긴 것이다. 尾聯에서 百丈을 끌어당기는 뱃사공의 苦生을 아파하는 人情이 있으므로 이 詩의 世界에는 親近味가 있다.

百丈은 배가 강물을 거슬러 갈 때 江岸에서 사람 힘으로 배를 끌고 올라가는데 쓰는 줄이다. 四川地方에서 많이 쓰며 竹·麻를 꼬아서 만든다. 그 길이가 百丈이라서 百丈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니, 代替를 포함한 複合心象이다. 그 고장에서는 이미 常套句가 되었겠지만, 外地사람에게는 신선하다. 益齋長短句 〈菩薩蠻〉「舟次青神」(10—18)에도 百丈이 쓰였다.

1—23 促織

促織復促織，哀鳴何惻惻！終夕弄機杼，平明無寸縷。
嫠婦才聞淚似泉，征夫一聽凋朱顔。春風融暖花着子，夏景舒長燕成壘。
胡爲不自謀，直待霜淸露冷方知秋？促織爾何愚！日月豈肯爲爾留須臾？

促織은 귀뚜라미의 別名이다. 이 詩에는 地名이 보이지 아니하나, 前後 紀行詩 안에 編次되어 있고 節氣와 環境이 맞으므로 西蜀行 시기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嫠는 原本의 嫛를 바로잡은 것이고, 融은 原本의 融을 바로잡은 것이고, 成은 原本의 城을 바로잡은 것이다.

雜言의 古詩, 每聯마다 換韻하였다. 第1聯은 入聲 職韻의 織惻, 第2聯은 上聲 語韻의 杼와 麌韻의 縷, 第3聯은 平聲 先韻의 泉과 刪韻의 顔, 第4聯은 上聲 紙韻의 子壘, 第5聯은 平聲 尤韻의 謀秋, 第6聯은 平聲 虞韻의 愚臾가 韻字이다. 귀뚜라미의 소리에서 聽覺心象이 강조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促織은 文字的 의미로는 베짜라고 재촉한다는 것이고, 「촉직」이란 소리는 베짜는 소리와 귀뚜라미의 우는 소리 두 가지를 포함한다. 促織은 이러한 代替를 포함한 複合心象을 가졌지만 또 이 단어는 이미 常套句가 된 것이다. 다만 益齋는 旅路에서 이 소리를 듣고 그 本來의 연상을 느끼면서, 自己의 새로운 情感의 世界를 탐색한 것이다.

1—24 聽寒道士彈秋風

我雖不能音，好琴莫如我；苟能得其趣，自謂不學可。

我來蜀中何所聞？鼓笛紛紛耳欲破。聽之亂吾眞，斥之恐遭罵。
不謂古仙翁，玩世在城中；迎我坐虛室，爲我鳴絲桐。
一鼓塵慮淸，再鼓古意生。王篆烟消人悄悄，整襟更作秋風調。
憭慄兮秋之爲氣也，霜露漸漸兮木葉下。望白雲兮征鴻哀，江水悠揚兮崔嵬。
嗟爾遠道之人兮，胡爲乎來哉？豈辭引滿玻璃鍾？比時此客心無窮！

이 詩에는 地名이 부각되지 아니하지만 第3聯의 我來蜀中과 第5聯의 在城中으로 보아 成都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당시 최고의 文化人이었던 益齋에게 감명 줄 정도의 연주라면 四川地方에서 成都 밖에 더 있기 어려울 것이다.

이 詩는 音樂 演奏를 내용으로 하여, 換韻의 妙味를 살리고 또 五·七·八言의 雜言句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聽覺心象을 중시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第1段은 上聲 哿韻의 我可, 第2段은 去聲 箇韻의 破와 禡韻의 罵, 第3段은 平聲 東韻의 翁中桐, 第4段은 平聲 庚韻의 淸生, 第5段은 上聲 篠韻의 悄調, 第6段은 上聲 馬韻의 也下와 平聲 灰韻의 哀嵬哉, 第7段은 平聲 冬韻의 鍾과 東韻의 窮이 韻字이다.

먼저 音樂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밝히고(第1段), 蜀 지방 여행에서는 音樂에 굶주린 것을 호소하고(第2段), 이제 뜻밖에도 신선같은 분의 音樂을 듣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第3段). 연주가 시작되면서 두 세번 튕기는 소리에 마음이 맑아지고(第4段), 향불 꺼지고 인적 조용해지면서 정식으로 秋風調를 탄다(第5段)고 狀況과 분위기를 설명한다. 第6段은 연주의 내용인데, 楚辭의 語套에서 이 노래가 슬프고 쓸쓸한 것임을 암시하면서 李白의 蜀道難에서「嗟爾遠道之人兮胡爲乎來哉」를 引用한다. 이 詩句에 익숙한 讀者는 그 演奏와 분위기에 몰입될 것이다. 이 引用으로 益齋는 李白의 詩의 藝術性에 견주어보려는 희망도 암시하고 있을지 모른다.[33] 第7段은 좋은 音樂에 취하는 것과 호사스러운 玻璃의 술잔에 취하는 것을 比較하면서 만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25 路上(自蜀歸燕)

馬上行吟蜀道難，今朝始復入秦關。碧雲暮隔魚鳧水，紅樹秋連鳥鼠山。
文字剩添千古恨，利名誰博一身閑？令人最憶安和路，竹杖芒鞋自往還。

蜀땅에서의 旅程은 끝나고 이제 秦땅으로 들어서면서 지은 詩이다.

博은 原本의 傅을 바로잡은 것이다.

七言律詩, 平聲 刪韻의 關山閑還이 韻字이다.

鳥鼠山은 甘肅省 渭源(34°30′N, 104°05′E) 서남에 있는 산(해발 2609 m)으로, 渭水의 始源이다. 그러나 魚鳧水는 蜀나라를 개척했다는 전설의 人物인 魚鳧를 들어 그 고장, 즉 蜀땅의 강물이라는 汎稱이다. 다만 鳥鼠山도 益齋 西蜀行의 旅程에는 들지 아니했다.

(33) 李章佑역,『中國詩學』, p. 203.

頷聯의 對句는 碧雲과 紅樹의 色彩, 虛實의 山水의 對比로 秦·蜀 경계지방의 풍경을 형상화 했다. 曺伸은 謏聞瑣錄에서 「豪壯」이라 評했 고, 朴趾源은 燕岩集에서 「華艶韶雅」라 評했다.[34)]

頸聯은 前半部의 外景에서 촉발된 情緖다. 그것은 知識人으로서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헛된 名利 때문에 自由가 없음을 한탄한다.

朴趾源은 「路上(1—25)을 항상 읊조린다」고 하였다.[35)] 大旅行家로서 共感이 컸던 모양이다.

1—26 函谷關

形勝平看十二齊，下臨無路上無梯。土囊約住黃河北，地軸勾連白日西。
天意已歸三尺劍，人心豈恃一丸泥！秋禾滿畝風塵靜，穩跨征鞍聽午雞。

函谷關은 關中地方(陝西省)을 中原의 勢力으로 부터 막는 古來의 關門이다.

七言律詩, 平聲 齊韻의 齊梯西泥雞가 韻字이다.

詩는, 前半部에서 函谷關의 험준한 形勢를 土囊, 黃河, 地軸, 白日의 心象으로써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頸聯에서는 天意, 三尺劍, 人心, 一丸泥의 歷史를 引用하여 그 意義를 밝혔다. 즉, 楚漢의 勝敗를 결정한 것은 이 地形이 아니라 天意, 즉 人心의 向背에 따른 것이라 함을 갈파 했다. 尾聯에서는 歷史的 敎訓은 아랑곳없이 말위에 앉아 낮닭 우는 소리 들으며 가을 벌사이 길을 가는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益齋는 吐蕃行 시기에 또 函關行(2—30)을 지었다.

1—27 澠池

强秦若翼虎，懦趙眞首鼠。特會非同盟，安危在此擧！
藺卿膽如斗，杖劍立左右。叱咤生風雷，萬乘自擊缶！
桓桓百萬兵，一言有重輕。廉頗伏高義，犬子慕遺名！
焉言池上遊，去我今幾秋？餘威起毛髮，萬木寒颼飀！

澠池는 지금도 같은 河南省 澠池이다. 戰國時代 秦나라 昭王嬴稷과 趙나라 惠文王趙何가 모인 澠池會로 유명한 곳인데, 이 모임에서 主人公 趙나라의 卿인 藺相如가 크게 활약했다.

五言古詩, 4次 換韻하는데, 그것은 內容上의 段落과 一致한다. 第1段은 上聲 麌韻의 虎와 語韻의 鼠擧, 第2段은 上聲 有韻의 斗右缶, 第3段은 平聲 庚韻의 兵輕名, 第4段은 平聲 尤韻의 遊秋颼가 韻字이다.

弱小國의 名譽와 實利를 지키는 智勇을 겸비한 賢臣 藺相如에 대한 敬服을 읊은 內容은 바로 益齋의 忠君愛國의 精神과 같다. 第1段에서는 澠池會의 意義를 槪括하고, 第2段에서는 藺相如의 英雄像을 묘사하고, 第3段에서는 그에 대한 當時와 後世 사람들의 評價를 소개한다. 앞

(34) 柳璽洲, 『益齋의 詩 硏究』, p. 226 再引.
(35) 上揭書, p. 239 再引.

의 3段은 歷史의 事件을 記述한 것이다. 王國維의 境界說에서 景의 의미를 自然과 外景 뿐 아니라 事件과 行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再整理한 劉若愚의 景에 해당된다고 보겠다.(36) 이것은 澠池의 外景의 意義를 풍부히 한 것이다. 第4段은 위의 外景에서의 反射로서 작자의 意識을 표현한 것이다.

끝 聯의 「餘威起毛髮, 萬木寒颼颼」는 並置를 포함한 複合心象이다. 餘威와 萬木을 서로 比較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讀者든지 이 兩者 사이에 暗示된 類推를 看過하지 않을 것이다. 若翼虎, 鎮首鼠, 膽如斗는 比較를 포함한 複合心象이다. 益齋의 이 詩에 있어서의 言語의 探索도 진지한 것이다.

1—28 二陵早發

予之將如成都也, 內翰松雪趙公子昂以古調一篇相送; 有『勿云錦城樂, 早歸乃良圖』之句。 十月北歸, 雪後二陵道中, 忽憶其詩, 作此寄呈。

夢破郵亭耿曉燈, 欲乘鞍馬覺凌兢。雲迷柱史燒丹竈, 雪壓文王避雨陵。
觸事誰知胷磈磊? 吟詩只得髮鬅鬙。塵巾折角裘穿縫, 羞向龍門見李膺。
附錄: 趙學士詩
三韓望巴蜀, 相去萬里餘。棧閣如登天, 劍門不可踰。
誰令觸炎熱, 鞍馬事馳驅? 王事有期程, 吾敢求安居?
道路何緬邈! 山川亦盤紆。賴彼多古跡, 庶可慰躊躇。
勿云錦城樂, 早歸乃良圖。秋高天氣淸, 矯首西南隅。

二陵은 殽山의 두 언덕을 가리킨다. 하나는 夏后皐의 墓가 있는 남쪽 언덕이고, 또 하나는 文王이 風雨를 피한 북쪽 언덕이다. 殽山은 河南省 洛寧縣(34°25′N, 111°40′E) 서북쪽으로 뻗은 山이다.

早는 原本의 平을 바로잡은 것이다.

七言律詩, 平聲 蒸韻의 燈兢陵鬙膺이 韻字이다.

益齋는 눈 덮힌 二陵을 돌아오다 문득 趙孟頫가 전에 자기에게 준 詩를 생각하고 이 詩를 지은 것이다.

首聯의 郵亭, 曉燈, 鞍馬의 心象은 早發을 表現함에 적절하다. 頷聯에서 老子는 巴蜀으로 떠났지만 나는 그 巴蜀에서 돌아오는 길이고, 옛날 文王은 여기서 비를 피했지만 지금은 눈이 쌓여있다는 旅路의 實景을 典故로써 尋味하게 했다. 頸聯의 對句는 自己의 小心함을 겸양했다. 尾聯에서는 登龍門을 통과한 趙孟頫 당신 같이 훌륭한 사람과 만날 일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旅路의 분위기, 헤어진 友情과 다시 만날 일에 대한 설레임이 느껴진다.

趙孟頫의 古詩는 여행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면서 준 것이다.

(36) 李章佑역. 『中國詩學』, p. 130.

萬里가 넘는 먼 거리, 棧閣의 험한 길, 炎熱한 날씨, 王事의 무거운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古跡을 볼 수 있음을 안위하고, 일찍 돌아올 것을 부탁한다. 讀者로 하여금 眞正한 友情을 느끼게 한다.

1—29 渡孟津

旄鉞空煩叱逆流，山河曾未屬西周！陽侯不媿夷齊義，莫比黃龍負禹舟。

孟津은 지금도 같은 河南省 孟津이다. 洛陽市 북쪽에 있어 古來로 黃河를 건너는 중요한 나루터이다.

七言絕句, 平聲 尤韻의 流周舟가 韻字이다

益齋는 孟津을 건너면서 여기에 얽힌 傳說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이것은 그 내용을 담은 詠史詩이다.

周나라 武王 姬發이 殷나라 紂辛을 칠 때, 山河는 아직 殷나라의 領有였으므로 河神 陽侯가 물결을 역류시켜 周나라 군사를 막았다는 傳說의 의미는 伯夷·叔齊가 武王 姬發에게 天子인 紂辛을 치지 말도록 忠諫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陽侯 傳說의 의미는, 이미 天命을 받은 禹王의 배를 이유 없이 방해한 黃龍의 傳說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益齋의 解釋이다. 儒家의 法과 秩序를 지키고 體制를 옹호하는 기본적인 思想에서 나왔다. 典故를 이용한 論理의 展開가 간결하다.

益齋는 吐蕃行 시기에 또 孟津紀事(2—32)를 썼다.

1—30, 31 比干墓

墓在衛州北十里許。盖周武王所封，而唐太宗貞觀中，道過其地，自爲文以祭。其石刻剝落，亦可識一二焉。夫二君之眷眷于異代之臣者，豈非哀其忠，愍其死乎！而武王忽伯夷於勝殷之後，太宗疑魏徵於征遼之日者，何耶？因作此詩，亦春秋責備賢者之義也。

(1—30)

周王封墓禮殷臣，爲惜忠言見殺身。何事華陽歸馬後，蒲輪不謝採薇人？

(1—31)

從來忿欲蔽良知，日暮令人有逆施。誓矣親祠比干墓，胡然却仆魏徵碑？

比干의 墓는 지금 河南省 汲縣에 있다. 益齋는 여기를 지나면서, 比干을 가운데 놓고 周 武王 姬發과 伯夷 叔齊, 唐 太宗 李世民과 魏徵과의 君臣關係를 吟味한다. 賢者에 대해서는 소소한 허물이라도 추궁한다는 春秋의 筆法을 본받아 이를 쓴다고 益齋는 序에서 밝혔다. 즉 王者의 길을 밝히는 詠史詩이다.

歷史를 배우고 文獻을 읽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종류의 論理展開를 試圖할 수 있지만, 益齋는 比干墓의 現場에서 그 感動을 깊이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作詩가 된 듯하다. 典故의 사용은

이 詩에서 풍부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했다고 보겠다.

七言絕句, 1—30은 平聲 眞韻의 臣身人이 韻字이고, 1—31은 平聲 支韻의 知施碑가 韻字이다.

1—32 燕都送朴忠佐少卿東歸

春風喜氣滿庭闈, 稱意新官馬似飛。慚愧西山子規鳥, 向人勤道不如歸。

燕都는 지금 北京市이다. 이 詩를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으나, 1317년 봄일 가능성이 크다. 益齋는 1316년 겨울에 西蜀行을 마쳤고, 1317년 7월에 다시 北京에 왔고, 1319년 江南行을 했다. 이 詩의 編次로 보아, 西蜀行 뒤 江南行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17년 7월에는 忠宣王의 誕辰을 축하하러 北京에 잠간 往返한 것이다. 그러면 西蜀行을 마친 다음 해 봄에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詩에 실린 感情은 同僚가 歸國하는 것을 배웅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七言絕句, 平聲 微韻의 闈飛歸가 韻字이다.

子規의 不如歸는 인습적인 象徵이지만, 稱意, 新官, 馬似飛는 心象이 새롭다.

1—33, 34 和呈趙學士(子昂)

(1—33)

珥筆飄纓紫殿春, 詩成奪得錦袍新。侍臣洗眼觀風采, 曾是南朝第一人。

(1—34)

風流空想永和春, 翰墨遺蹤百變新。千載幸逢眞面目, 況聞家有衛夫人。

原注：學士夫人管氏亦工書。

趙孟頫와는 이미 二陵早發(1—28)의 和答詩가 있다. 이 詩는 西蜀行 시기에 씌어진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紀行詩 가운데 中國 人士들과 和答한 詩들과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다.

七言絕句, 平聲 眞韻의 春新人이 韻字이다. 두 首는 疊韻이다.

이 詩는 趙孟頫의 風采, 人品, 文章, 藝術을 극찬했다. 1—34에서 그 夫人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益齋와 趙孟頫와의 友情이 자별함을 알 수 있다.

Ⅳ. 世界와 言語

劉若愚교수는 그의 『中國詩學』(37)에서 "Poetry as Exploration of Worlds and of Language"(世界와 言語와의 探索으로서의 詩)란 詩觀을 제출했다. 여기서 Worlds는 원래 王國維의 境界를 英譯한 말이다. 劉는 王의 境界를 情과 景으로 구성된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中國이나 西洋의

(37) James J.Y. Liu, The Art of Chinese Poe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많은 詩에 적용된다. 益齋의 西蜀行 詩 가운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많다. 특히 定興路上(1—05), 汾河(1—09), 阻友符文鎭(1—17), 雷洞平(1—19), 二陵早發(1—28) 같은 것은 情과 景이 특히 잘 융합된 작품이라 하겠다.

劉는 이 境界의 槪念에 대해 擴張을 시도했다. 境界란 말을 情·景의 융합으로 생각한다면, 事件을 진술하거나 순수한 知的 思辨을 위주로 하는 詩의 定義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境界란 말을 人生의 外面과 內面의 總合으로 정리한다면, 前者는 自然과 外景뿐 아니라 事件과 行動까지 포함할 것이고, 後者는 感情 뿐 아니라 思想, 記憶, 感動, 幻想까지 포함할 것이다. 劉의 Worlds는 이미 王의 境界와 같지 않다. 『中國詩學』의 中譯本에서는 Worlds를 다시 境界로 환원시켰으나, 韓譯本에서는 世界로 번역했다.[38] 이 小論에서는 王의 境界, 劉의 世界로 구분해서 쓴다.

益齋의 詩 가운데 事件을 진술하거나 순수한 知的 思辨을 위주로 하는 詩도 많이 있다. 過中山府感倉唐事(1—06), 井陘(1—07), 過祁縣感祁奚事(1—08), 諸葛孔明祠堂(1—16), 澠池(1—27) 등의 詩들은 보통 하나의 모럴을 지적하거나 혹은 현재의 정치적 事件에 대한 論評을 위한 도구로서 어떤 역사적인 事件을 引用한, 소위 詠史詩이다. 益齋의 이 詠史詩들은 그 事件과 관계되는 地點을 踏査하고 訪問하면서 지었으되, 現地의 景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聽寒道士彈秋風(1—24)은 彈琴의 事件을 거의 外景의 도움 없이 진술했다. 外見上으로는 事件의 陳述일 뿐이지만 그것은 효과적으로 뜻밖의 장소에서 훌륭한 연주를 듣게 된 기쁨과 흡족함이 잘 나타나 있다. 또 促織(1—23)은 귀뚜라미의 哀鳴이 作詩의 動機를 유발했으나 全篇은 순수한 思辨을 爲主로 했다.

1) 世 界

詩가 다른 世界와 言語와의 探索인 이상, 한 首의 詩를 판단할 때 우리는 자연히 두 개의 중요한 批評의 標準을 사용해야 한다고 劉若愚 교수는 말한다.[39] 한 편으로는 우리가 「이 詩는 自己의 獨自的인 世界를 探索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世界인가?」라고 물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가 「言語의 使用에 있어 그것은 새로운 局面을 개척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 대답에 따라 그 詩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지 나쁜지? 「훌륭한 것」인지 그저 「좋은 것」일 뿐인지? 하는 우리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 汾河(1—09)는 自然과 歷史의 永遠性을 덧없는 人生에 對照시킨 懷古詩이다. 漢나라 武帝 劉徹의 秋風辭에 이미 표현된 感情을 自己詩에 끌어들였으되 새롭게 脫胎시켜 그 意味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38) 杜國淸역, 劉若愚, 『中國詩學』(臺北 : 幼師公司, 1977). 李章佑역, 劉若愚, 『中國詩學』(서울 : 同和出版公社, 1984). 이 章에서 引用한 역문은 대개 李章佑역에 따랐으나 일부 이견이 있는 곳은 原文과 杜의 中譯을 참고하여 筆者가 달리 하기도 했음.

(39) 李章佑역, 『中國詩學』, p. 133.

「사람의 外面世界와 內面世界는 이 詩안에서 하나의 調和된 統一體를 이루고 있는가? 外面世界는 항상 어떤 內面經驗의 光彩 속에서 觀察되는가, 혹은 그 반대로, 內面經驗은 外面環境으로 부터 자연히 나타나는가? 自然界의 細部事項은 內面經驗과 調和되는 밀착된 그림을 이룩하는가, 혹은 그것들이 기계적으로 집적된 잡동사니라서 分析을 가하면 조각조각 흩어지는가?」(40) 이러한 劉若愚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過中山府感倉唐事(1—06)는 겉으로 보기에 事件을 陳述한 것 뿐이지만, 이 外面世界는 內面經驗의 光彩 속에서 관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 질문은, 「이 詩는 우리를 어떠한 世界로 引導하는가」이다. 개개의 詩를 다룸에 있어서, 나아가 한 詩人의 작품 전체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을 「새로운 世界로, 보다 높은 思想으로, 보다 깊은 感情으로, 보다 넓은 視野로 引導하는가, 혹은 다만 익숙한 世界를 소개할 뿐인가」하는 질문도 적절하다. 劉若愚교수의 대답은 이렇다. 즉 훌륭한 詩와 하찮은 詩와의 차이는 前者가 우리들을 새로운 境界로 引導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感受性을 확대시키는 데 대해서 後者는 우리들에 익숙한 世界를 재현시키고 그래서 다만 우리 자신의 經驗을 확인시킬 뿐인 것 같다(41)는 것이다. 登峨眉山(1—18)은 독자를 잠시나마 無極의 世界로 인도하여 觀照狀態를 얻게 한다. 無極은 太極의 異名이다. 宋,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의하면, 宇宙의 本體가 無味無臭, 無聲無色, 無始無終이기 때문에 無極이라 한다. 宇宙의 本體를 靜的 見地에서 이름 붙인 것으로서 그 體를 가리켜 일컫는 것이다.

훌륭한 詩는 우리로 하여금 종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더라도 그렇게 뚜뚜히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해주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래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더라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42) 간단히 말해서 훌륭한 詩는 우리에게 새로운 世界를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낡은 世界를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詩는 다만 眞實의 表現일 뿐 아니라, 그것의 擴大이기도 하다.(43)

函谷關(1—26)은 戰爭과 관계되는 詠史詩의 題材이다. 그러나 益齋는 그 尾聯에서 「말 위에 앉아 낮닭 우는 소리 들으며 가을 발사이 길을 가는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讀者를 즐거운 旅行의 世界로 引導했다.

益齋는 『櫟翁稗說』(44)에서 「古人多有詠史之作, 若易曉而易厭, 則直述其事, 而無新意者也」라고 말했다. 새로운 世界를 探索치 아니한 것은 훌륭한 詩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益齋는 그의 주장을 그의 作詩로써 실천했다.

(40) 上揭書, p. 133.
(41) 上揭書, p. 134.
(42) 上揭書, p. 134.
(43) 上揭書, p. 135.
(44) 李齊賢, 『櫟翁稗說』, 後 2—18.

2) 言　語

훌륭한 詩는 經驗의 새로운 世界를 創造하는 이상, 그 言語의 使用에 있어 종래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니, 거기에는 새로운 表現, 感覺과 音律의 새로운 結合, 그리고 單語와 心象, 象徵, 聯想의 새로운 模型들이 따라야 한다.[45]

心象들은 단순히 單語들 속에서 그림일 뿐 아니라 그 心象들은 情緖的 聯想을 일으키니, 그 詩의 文脈을 풍부히 해 준다.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1—15)에 있어, 首聯의 錦江, 江上, 白雲, 秋, 驪駒, 酒樓와 頸聯의 雨, 寒犢, 漁店, 波, 輕鷗, 客舟의 心象들은 신선하고 살아 있으며 詩의 분위기를 조화시키는 聯想을 불러 일으킨다.

象徵은 몇 가지 면에서 複合心象과 구별된다. 첫째, 複合心象은 다만 국한된 意義만 갖고 있지만, 象徵은 一般的인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하나의 象徵은 약간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具象的 事物이다. 過祁縣感祁奚事(1—08)의 「拂袖一去雲無心」의 雲은 아무데도 매이지 않은 洒落함의 象徵이다.

複合心象(compound imagery)에 관해서 劉若愚교수는 直喩(simile)와 隱喩(metaphor) 사이에 게재된 형식적인 구분에 따르지 않고, 心象 속에 내포된 두 事物 사이의 聯關의 差異度에 따라 몇 가지 型으로 구분했다. (1) 그 두 事物 사이에 어떤 명백하거나 불명백하거나 간에 어떠한 비교도 없이 둘을 단순하게 나란히 놓는 것, (2) 한 事物과 다른 事物을 같다고 하는 것, (3) 한 事物을 마치 그것이 다른 事物인 양 묘사하는 것, (4) 한 事物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정식으로는 그것에 기인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진 것등이 있다. 이러한 心象들은 種類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程度에 있어서 서로 달라지는데, 그들은 비슷한 精神過程의 여러 단계——두 事物을 연결하는——를 대표한다. 이 단계들을 (1) 並置(juxtaposition), (2) 比較(comparison), (3) 代替(substitution), (4) 轉移(transference) 따위로 부른다.[46]

並置를 내포한 複合心象은 豫讓橋(1—10)의 「一片荒橋石, 誰留國士名」과 澠池(1—27)의 「餘威起毛髮, 萬木寒颼颼」에서 볼 수 있다. 比較를 내포한 複合心象은 雷洞平(1—19)의 石路蜿蜒細於縷, 汗如雨, 金門似海深과 같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喧萬鼓, 羅九虎처럼 암시되는 것도 있다. 代替를 내포한 複合心象은 雷洞平(1—19)의 胡孫梯가 있고, 또 促織(1—23)은 제목 자체가 그것이다. 다만 후자는 이미 常套句(clichés)가 된 것이지만 益齋는 이것을 題材로 하여 자기의 抒情詩를 썼다. 轉移를 내포한 複合心象은 雷洞平(1—19)의 慈木과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1—15)의 寒犢, 輕鷗가 있다.

典故 사용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이 처음 쓰인 것인지 습관적인 것인지, 혹은 독특한 것인지

(45) 李章佑역, 『中國詩學』, p. 135.
(46) 上揭書, p. 145.

통속적인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어떤 目的이나 理由를 갖고 있는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이 典故는 全體 詩의 效果에 무엇을 더해 주는지, 단순히 그저 詩人의 學問을 과시할 뿐인지, 혹은 여기에 그 典故를 사용한 理由가 있는지, 그 典故를 사용치 아니했더라도 이 詩人은 그 典故로써 구체화 시킨 내용과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겠는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詩 안에서의 典故의 優劣을 따지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 典故는 狀況을 제시하는 하나의 경제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典故의 사용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령 密愛事件 또는 政治的이거나 個人的인 諷刺에서 스캔들이나 박해를 피할 수도 있다.(47)

黃河(1—11)에서 焚舟孟明視와 投璧晉公子의 典故를 사용치 아니하고 比較를 내포한 複合心象으로 또는 그냥 直敍했더라면, 益齋는 아마 自己憐憫과 自己欺瞞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蜀道(1—14)에서는 題橋客의 典故를 사용함으로써 司馬相如와는 다른 詩人自身의 입장이 구체화 되었다.

對句는 하나의 事物을 양면에서 표현한다. 같은 槪念을 다른 표현으로써 두 번 되풀이하는 것이다. 독자는 두 개의 線을 교차시켜 바라는 點을 찾듯이 두 구절에서 歸納的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만약 한 쪽에 대해 理解할 수 없거나 同意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한쪽으로부터 힌트를 받아 그 의미를 類推할 수도 있고 說得될 수도 있다. 西洋의 論理로서 본다면 조잡하고 비약되는 수도 있지만, 對句는 感性的으로 독자를 說得시키고 共感시키는 힘이 있다. 窮極的으로 對句는 詩의 論理이다.(48)

益齋의 이 詩 가운데에는 정교한 對句가 많다. 蜀道(1—14)는 五言排律로서 중간에 7聯의 對偶가 연속되어 있다. 그리고 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1—15)의 「雨催寒犢歸漁店, 波送輕鷗近客舟」, 登峨眉山(1—18)의 「蒼雲浮地面, 白日轉山腰」, 思歸(1—21)의 「窮秋雨鎖靑神樹, 落日雲橫白帝城」, 上灘(1—22)의 「不妨聽雨留連睡, 且喜逢山子細看」, 路上(1—25)의 「碧雨暮隔魚鳧水, 紅樹秋連鳥鼠山」이 특히 정교하다. 世界와 言語와의 探索이 잘 이루어졌다.

V. 結 論

益齋 西蜀行 詩는 바로 紀行詩이다. 旅路에서 일어난 일, 見聞과 感想을 적은 作品이다. 그러므로 그 題材가 特定的이다. 山川·關津·羈旅·懷古·閑情·應酬와 詠史 등은 主題的인 것이고, 征鞍·馬上·百丈·長帆·鵲橋·酒樓·寒犢·午雞 등은 素材的인 것이다. 이 題材는 中世的 古典詩——漢詩에 걸맞게 각각의 傳統 속에서 각각의 獨自的인 心象의 構造를 갖고 노래 된

(47) 上揭書, pp. 189f.
(48) 池榮在편 역, 『中國詩歌選』, p. 11.

다. 主題든 素材든 일단 選擇된 題材는 作者 個人의 心象이나 傳統的 心象과 갖가지 모양으로 의탁되어 있다.

益齋 西蜀行 詩 가운데, 主題에 있어 詠史가 두드러지는 것은 益齋의 儒學者·政治家의 意識이 歷史의 現場에 나아가 절로 觸發된 것이겠다. 다분히 衒學的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技巧主義者——擬古派나 道學派처럼 益齋로서는 자연스럽고 평이했던 것이다. 오히려 益齋가 원했던 것은 거기에 작자의 「新意」, 즉 새로운 世界를 탐색하려는 것이었다.

登峨眉山(1—18), 雷洞平(1—19), 函谷關(1—26)의 世界와 言語와의 探索은 아주 새롭고 훌륭하다. 汾河(1—09)의 懷古는 漢나라 武帝 劉徹이 이미 행한 探索에 다시 益齋 자신의 探索을 가한 二重의 探索이 의미 깊다. 七夕(1—04)의 아내 그리는 情은 益齋에 대한 讀者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張養浩·元明善·趙孟頫는 學問과 文學의 大家로서 歷史에 뚜렷한 人物이다. 이들과의 당당하면서도 진정 어린 和答詩는 사교적인 應酬의 범위를 벗어나 훌륭한 作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益齋 李齊賢은 大旅行家요 詩人이다. 公務를 띤 큰 旅行을 앞에 두고도 걱정보다 「安坐豈償男子志」(1—05)라고 떨쳐 일어났으며, 羈旅에 시달리면서도 「每因王事飽淸遊」(1—15)라고 고마워했으며, 또 「不妨聽雨留連睡, 且喜逢山子細看」(1—22)이라고 느긋해 했다. 西蜀行 詩는 中國에서의 첫번 旅行에서 접한 새로운 感興이 作詩의 가장 큰 動力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이 詩 가운데에서 우리는, 言語의 探索과 함께 自己의 世界를 探索하였으므로 創造性·眞率性·普遍性·豐富性을 갖춘 것을 많이 보는 것이다.

益齋의 紀行詩는 이 밖에 또 江南行 詩, 吐蕃行 詩 등등이 있다. 이들을 다 考察하면 보다 종합적인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